



공황장애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분석

유명한 정보원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김류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언론학과 박사과정*

윤영민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본 연구는 최근 빠른 속도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인 공황장애에 초점을 두고 지난 7년간 공황장애를 다룬 온라인 뉴스기사를 양적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황장애 언론보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정보원은 유명한 환자(84.5%)로, 일반인 환자(5.9%)의 10배 이상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어 개인의 건강행위 과정을 설명하는 예방책 채택 과정 모형(PAPM)에 근거하여 언론이 공황장애에 대한 기초 정보에서부터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이르기까지 건강정보를 균형 있게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공황장애의 발병 원인에 대한 언급(66.6%) 및 증상에 대한 언급(74.6%)은 충실한 반면,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한 언급(55.8%)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정보의 균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도 양상은 환자 정보원 유형(유명한 vs. 일반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인 환자 중심의 보도가 유명한 환자 중심의 보도에 비해 공황장애 건강행동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언급하고 있어 보도의 질적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사 내에서 제시되는 환자의 성별 비중 측면에서 보면 일반인 환자 중심 기사에서는 남성 환자와 여성 환자의 등장 비율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여성 환자 4.8%, 남성 환자 69.0%) 남성 중심의 성별 편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명한 환자 중심 보도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3배 수준으로 줄어(여성 환자 23.6%, 남성 환자 76.4%) 여성이 공황장애를 더 많이 앓고 있는 사회적 현실이 더 적절히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사례 측면에서도 일반인 환자 중심 보도의 경우 공황장애로 인한 사회 부적응이나 자살과 같은 부정적 사례(50.0%)가 긍정적 사례(5.9%)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반면, 유명한 환자 중심 보도의 경우 증상의 완화나 원치와 같은 긍정적 회복 사례(47.0%)가 부정적 사례(10.5%)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공황장애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서 공황장애를 다루는 언론의 올바른 보도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정신질환보도에서 유명한 정보원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핵심어: 공황장애, 언론보도, 내용분석, 유명한 정보원, 예방책 채택과정 모형

* sabim@korea.ac.kr

** ymyoon@korea.ac.kr, 교신저자

1. 서론

“저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유병 경험에 대한 유명인들의 공개 증언이 최근 몇 년 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고백에는 발병 원인에서부터 증상, 치료법, 그리고 회복이나 재발에 이르기까지 직접 경험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유명인이지만 동시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의 한 사람으로서 질병에 대한 정보와 치료 경험담을 언론을 통해 공유하는 셈이다. 이처럼 유명인 다수의 증언으로 인해 ‘연예인 병’이라는 별칭까지 있지만 공황장애는 비단 유명인만 겪는 질병이 아니다. 국내 공황장애 진료 인원은 2010년 5만여 명에서 2015년 10만여 명, 2016년 12만여 명으로 연평균 16%의 증가세로 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황장애 진단과 치료행위가 우울증, 조현병과 같은 여타의 정신질환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정신질환은 국내에서 발병률이 높은 질병이지만 사회적 낙인이 강하여 치료 거부율이 높고 전문가를 통해 치료받는 환자의 수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보건복지부, 2017). 그런데 공황장애도 이와 같이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이 강한 정신질환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공황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환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울증과 비교할 경우에도 전체 환자 수 측면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더 많으나 환자 증가폭 측면에서는 2010년 대비 2016년 국내 우울증 진단 환자가 약 9% 증가한 반면, 동 기간 공황장애 환자는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이처럼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환자 증가의 원인으로 의료 전문가들은 미디어와 유명인을 지목한다. 언론을 통해 유명인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병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됐고, 정신과 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어 병원을 찾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었 것이라는 분석이다(연합뉴스, 2017.3.19).

이처럼 공황장애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대중으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받기를 꺼려하는 유명인들까지 유병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재, 공황장애 보도 양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는 탐색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질병에 대한 언론의 보도양상을 분석한 연구는 국민 건강증진과 올바른 보도 가이드라인 제시 측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정신질환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Borinstein, 1992; Thornton & Wahl, 1996; Wahl & Lefkowitz, 1989), 언론을 통해 공황장애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공황장애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심어주지 않도록 올바른 보도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폭발적인 환자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의 발현에도 불구하고 공황장애에 대한 보도내용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간 정신질환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

내용분석은 정신질환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거나 또는 우울증이나 자살에만 주로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다(김대욱·최명일, 2016; 노수진·윤영민, 2013; 백혜진·조혜진·김정현, 2017; 안순태·이하나, 2016; 이하나·안순태, 2013; 조수영·김정민, 2010). 이에 본 연구는 공황장애에 초점을 두고 2010년부터 7년 간 보도된 온라인 뉴스 기사를 통해 공황장애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양적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로 건강행동 설명 이론인 예방책 채택 과정 모형(Precaution Adoption Process Model, 이하 PAPM)을 적용하였다. PAPM은 개인의 건강행위를 건강이슈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건강행동을 이행하기까지 7단계를 거치는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건강행위의 상위 단계로 이동하는데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Weinstein, 1988; Weinstein, Sandman, & Blalock, 2002). 이는 언론을 통한 건강정보의 전달이 공중의 건강지식을 향상시키고 건강관련 행위를 유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Coleman & Thoronson, 2002; Entwistle, 1995; Kennedy & Bero, 1999). 이 때 사람마다 특정 건강 행동에 대한 지식수준과 관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언론은 특정 건강정보에 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PAPM에 근거, 언론이 공황장애 건강행위 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균형 있게 전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어 공황장애에 대한 논의가 유명인의 증언을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만큼 이러한 보도 양상이 정보원 유형(일반인 또는 유명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공황장애에 대한 인지에서부터 진단, 예방과 치료행동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건강행동 단계에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언론이 적절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언론이 공황장애 건강행위를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가 전달하는 공황장애 보도 방향과 지침에 대한 제언이 공황장애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

1) 공황장애

공황장애(panic disorder)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의 한 종류로, 스트레스가 극심한 경우 생

물학적 또는 심리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발현되는 공포반응으로 정의된다(Barlow, 1988). 공황장애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극단적으로 불안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공황발작(panic attack)이라고 하는데, 극심한 공포심을 동반한 심리적 증상과 함께 심장이 급격히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거나 또는 숨이 차는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공황발작이 일어나는 동안 개인은 호흡 곤란, 현기증, 두려움, 감각 이상 등의 극심한 공포함 또는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공황장애 증상은 10분 정도 지속된다(Sadock, Kaplan, & Grebb, 1994).

국내 공황장애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에 따르면 공황장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2년 8만3천여 명, 2014년 9만8천여 명, 2016년 12만7천여 명으로 연 평균 약 16%씩 증가하고 있다. 성별 분포를 보면 2010년까지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 수를 우회했으나 2011년부터 역전하여 2016년 기준 여성 환자가 53.2%를 차지해 남성보다 높은 비율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증가율도 남성이 연간 10%, 여성이 12%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2016년 기준 40대가 25.4%로 가장 많은 가운데 50대 21.7%, 30대 18.4% 순으로 공황장애를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황장애는 우울증이나 조현병 보다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기간이 짧은 질환이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심각성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황장애는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을 유발하며 약물남용의 위험이 높고 자살시도와 생활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높다(Markowitz, Weissman, Ouellette, Lish, & Klerman, 1989; 김세주·김영신·유상우, 2001 재인용). 또한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 인구에 비해 공황장애 환자가 약 10배 더 높다(Harris & Barraclough, 1997; 제영모, 2004 재인용). 국내 의료계에서도 공황장애를 방치할 경우 환자가 절망과 우울에 빠지거나 술에 의존하고, 자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데(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최근 공황장애로 인해 자살한 서울도시철도 기관사들과 유명인들의 사례가 이를 반증한다.¹⁾

공황장애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로 대표된다. 인지행동 치료는 공황장애에 대해 잘못 인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하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약물 치료가 부작용 및 재발율이 높다는 단점으로 인해 인지행동치료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최영희, 2006; 허유정·최영희·박기환, 2003).

1) 공황장애 앓던 서울도시철도 기관사 또 자살 (경향신문, 2016, 4, 10),
가수 겸 배우 한나, 지난 1월 자택서 자살... 공황장애 앓았다 (국민일보, 2014, 10, 1)

2) 건강행위 및 정신질환 인식에 대한 언론보도의 영향

언론은 건강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Coleman & Thorson, 2002; Yanovitzky & Stryker, 2001). 언론의 보도 시각은 개인이 건강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는 과정이나 건강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의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Coleman, Thorson, & Wilkins, 2011). 특히 뉴스를 통해 개인에게 전달되는 건강정보는 건강 위협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예방적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Entwistle, 1995; Yanovitzky & Blitz, 2000) 뉴스에서 주로 다루는 건강 이슈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대중의 인식과 태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leman & Thorson, 2002).

건강정보와 행위에 미치는 언론보도의 영향력은 두 가지 방향에서 평가된다. 긍정적 측면에서 언론은 건강관련 정보를 확산시키는데 있어 효과적이다(Brodie, Hamel, Altman, Blendon, & Benson, 2003). 언론은 개인에게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관련 지식의 함양 뿐 아니라 식습관 개선이나 건강검진 수검과 같은 구체적인 건강행동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Coleman & Thorson, 2002; Entwistle, 1995; Yanovitzky & Blitz, 2000). 개인들은 대인 커뮤니케이션 보다 뉴스와 같은 언론을 통해 질병 관련 지식을 더 많이 전달받고(Mills & Davidson, 2002), 또한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거나 지식을 확산시키는 데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Adelman & Verbrugge, 2000; Fishman, 2006). 또한 사건사고 소식을 전달하는 일반 사회적 성격의 보도기사와 달리 건강관련 뉴스는 질병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법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아니라 건강한 삶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종의 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건강정보 교육에 효과적이다(Brodie et al., 2003).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언론의 부정적 효과를 보고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을 이슈로 다루는 경우 언론의 부정적 영향이 더 많이 발견되는데, 자살, 정신질환과 같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질병에 대해 언론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강하다는 점(Pechmann & Ratneshwar, 1994)을 고려할 때 언론의 주의 깊은 보도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언론보도는 정신질환에 대해 개인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고(Sieff, 2003), 사회적 편견을 형성하는 부정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Corrigan, 2007). 언론이 정신질환을 부정적이고 거부감 높은 질병으로 재현함으로써 낙인(stigma)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Thronto & Wahl, 1996). 또한 정신질환을 다룬 언론보도의 내용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치료 가능성 관련 정보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7년 기준으로 정신질환의 완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기사는 전체 중 14.6%이며, 그 중 약 7%는 완치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미경·김정남·이민규, 2008). 또한 1997년부터 10년 간 TV 지상파 방송의 뉴스를 통해 보도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뉴스 중 정신질환 치료법을 제시한 기사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전체 중 86.4%는 치료법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조수영·김정민, 2010). 2007년부터 5년간 우울증에 대한 온라인 뉴스 기사를 분석한 노수진과 윤영민(2013) 연구에서도 전체의 약 절반 이상에서 우울증 치료방식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결과 국내 언론은 정신질환을 인간적 흥미 프레임 위주로 다룬 보도가 많고, 보도의 부정적 편향성이 깊으며, 회복과 성취와 같은 긍정적 프레임의 보도가 극히 적을 뿐 아니라, 치료방식의 언급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노수진·윤영민, 2013; 백혜진 등, 2017; 조수영·김정민, 2010).

3) 건강관련 언론보도에서 유명인 정보원의 영향

유명인은 언론을 통해 대중의 건강이슈에 대한 인식 향상과 감정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ncaid, 2002). 이 때 유명인 정보원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함께 보고되고 있는데, 먼저 부정적 영향은 유명인을 중심으로 한 건강이슈 보도가 오히려 흥미를 위한 일회적인 자극의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기인한다. 국내 우울증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노수진·윤영민, 2013)에 따르면 우울증을 다룬 기사에서 유명인이 정보원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정작 우울증의 신경·생물학적 원인과 사회·심리·환경적 원인 모두 유명인 환자 중심의 기사보다 일반인 환자 중심의 기사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 유명인 중심 보도의 질적 가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연구에서 우울증 치료방식에 대한 언급 측면에서도 일반인 보다 유명인 정보원 유형의 기사에서 언급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원으로서의 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동에 대한 유명인 정보원의 부정적 역할은 자살행동에서 특히 많이 발견되는데, 유명인의 자살 방법을 그대로 모방해 따라서 자살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대표적이다. 해외에서는 2004년 홍콩 배우 장국영의 자살이, 국내에서는 2008년 최진실의 자살 이후 같은 방법으로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례가 많았다. 이와 같은 모방효과는 유명인의 자살이 발생할 경우 언론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등 자살을 뉴스의 상품으로 이용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김인숙, 2009).

하지만 건강이슈에 대한 유명인 정보원 활용의 긍정적 효과가 검증된 사례도 적지 않다. 농구 선수 매직 존슨의 HIV 감염 사실 공개가 HIV 예방의 필요성과 심각성에 대한 환기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유명인을 통한 사람들의 태도와 신념 변화가 가능함이 확인되었다(Brown & Basil, 1995).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영부인 베티 포드와 낸시 레이건이 유방암을 앓는 사실을 공개 증언한 것을 계기로 유방암에 대한 인식 증가와 공개적 논의가 활발해졌다(Braun, 2003). 또한 가수 카일리 미노그가 유방암 진단을 공개한 후 젊은 여성들의 유방암 검진율이 증가한 사례가 있다(Sharma, 2008). 국내 연구에서는 안동근(2012)이 개그민 이주일의 증언을 중심으로 한 금연 캠페인에 대한 효과를 확인했는데, 분석 결과 수용자들의 공감을 이끌고 흡연의 심각성을 고취시키는 등 인식, 행동 의도, 행동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명인은 대중의 주목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질병에 대한 증언은 질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질병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과 태도와 같은 사회적 편견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정보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Sharma, 2008). 앞서 언급한 베르테르 효과 역시 유명인 본인이 수행한 올바른 건강행위에 대해 증언할 경우 대중이 그를 따라하는 긍정적인 모델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황장애는 유명인의 유병 경험에 대한 증언을 중심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질병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일반인과 유명인 정보원에 따른 공황장애 보도 양상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공황장애 보도에서 유명인이 정보원으로써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도의 질적 향상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통해 공황장애를 다룬 기사의 보도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1. 공황장애에 대한 언론보도 양상은 어떠한가?

- 1-1. 공황장애 언론 보도량의 증감 추이는 어떠한가? 동 기간 공황장애 환자 수 증감 추이와는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 1-2. 공황장애 언론보도의 주요 정보원은 누구인가?
- 1-3. 공황장애 언론보도에서 제시되는 환자 정보원의 성별 비율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러한 성별 비율은 환자 정보원 유형(일반인 vs. 유명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4) 예방책 채택 과정 모형(PAPM)

예방책 채택 과정 모형은 개인의 건강행위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특정 질병에 대한 개인의 건강행위는 건강이슈에 대한 인지에서부터 신념 및 태도 형성, 그리고 예방과 치료

행동 실행에 이르기까지 7 단계를 거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서 언론이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Weinstein, 1988). 이 때 개인마다 특정 건강 행동에 대한 지식수준과 관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위치한 단계는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언론은 정보가 특정 단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정보를 포괄적으로 전달 할 필요가 있다. 웨인스타인 등(1992)이 제시한 각 건강행위 단계별 특성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문제 미 인지(Unaware)' 단계로 특정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접해본 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요인은 질병의 위험요소와 예방에 대한 대중매체의 메시지이다. 즉 언론보도를 통해 질병의 기초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질병에 대해 인지하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질병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나면 다음 2단계 '문제 비 개입(Unengaged)'로 전환하는데, 특정 질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며 해당 질병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하지만 개인의 시간과 인지적 주의자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모든 질병 정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본인의 상황을 대입시키지는 못한다. 이를 '낙관적 편향' 상태로도 볼 수 있는데, 질병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 질병에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라돈 고 위험 지역에 사는 응답자의 50%가 라돈이 어떤 물질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신의 집의 라돈 수치를 테스트 할 고려는 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했다(Sandman, Weinstein, & Klotz, 1987).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질병이 유발하는 증상정보와 개인이 질병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에게 중요한 타인과의 의사소통 역시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된다. 웨인스타인 등(1992)에 따르면 특히 이 단계에서 언론의 효과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언론을 통해 해당 질병에 대한 아젠다를 형성함으로써 사람들이 해당 이슈를 고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3단계부터 의사결정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3단계는 행동 고려(Undecided), 4단계는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Decided not to act), 5단계는 행동 결정(Decided to act) 단계이다. 3단계에서 개인은 이슈에 자신의 상황을 대입하여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3단계에서의 고려 결과에 따라 4단계 또는 5단계로의 이동이 결정되므로 무엇보다 이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심각성, 취약성, 그리고 예방책의 효과에 대한 신념 관련 정보의 전달이 중요하다. 6단계는 '실행(Acting)'으로 건강행동을 실제 행위로 실천하는 단계이다. 건강 이슈에 대한 예방과정을 채택하는 단계인 것이다. 이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요인으로는 예방 및 치료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과 실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노력 등)의 정도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 7단계는 유지(Maintenance)로 주기적으로 예방행동을 반복하거나 패턴화된 습관을 형성하여 행동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상 웨인스타인 등(1992)이 제안한 건강행위 단계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PAPM에 따른 단계별 건강행위 및 영향 정보 요인

건강행위 단계	해당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요인
(1단계) 문제 미 인지	질병에 대한 기초 정보
(2단계) 문제 비 개입	질병의 증상 및 자가진단 정보
(3~5단계) 행동 고려 및 결정	질병의 심각성, 취약성 및 타인의 건강행동 정보
(6~7단계) 실행 및 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방법 정보

주: 웨인스타인 등(1992)이 제안한 건강행위 단계와 영향요인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함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PAPM에 근거하여 과연 언론이 공황장애 기초 정보에서부터 치료법에 이르는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 역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PAPM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질병 보다는 질병에 대한 인식이 낮고 신념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강행동에 적용하기가 더 적합하다는 점에서(Weinstein, 1988) 상대적으로 대중의 이해도가 낮고 알려진 기간이 짧은 공황장애에 PAPM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이에 다음의 연구문제를 통해 언론보도가 공황장애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연구문제 2. 예방책 채택 과정 모형(PAPM)에 근거한 공황장애 언론 보도 양상은 어떠한가?

2-1. <문제 미 인지> 단계와 관련한 정보가 언급되는 정도는 어떠한가?

- (1) 공황장애 정의가 언급되는 정도는 어떠한가?
- (2) 공황장애 원인이 언급되는 정도는 어떠한가?

2-2. <문제 비 개입> 단계와 관련한 정보가 언급되는 정도는 어떠한가?

- (1) 공황장애 증상이 언급되는 정도는 어떠한가?
- (2) 공황장애 자가진단 정보가 언급되는 정도는 어떠한가?

2-3. <행동 고려 및 결정> 단계와 관련한 정보가 언급되는 정도는 어떠한가?

- (1) 공황장애 취약성이 언급되는 정도는 어떠한가?
- (2) 공황장애 심각성이 언급되는 정도는 어떠한가?
- (3) 공황장애 회복사려가 언급되는 정도는 어떠한가?

2-4. <실행 및 유지> 단계와 관련한 정보가 언급되는 정도는 어떠한가?

- (1) 공황장애 예방 및 치료법이 언급되는 정도는 어떠한가?

또한, 다음의 연구문제를 통해 공황장애를 다루는 언론보도 양상이 환자 정보원 유형(일반인 또는 유명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연구문제 3. 공황장애 언론보도에서 중심이 되는 환자 정보원 유형(일반인 환자, 유명인 환자)에 따라 보도 양상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7년 간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 게재된 뉴스기사 중 제목에 ‘공황장애’ 키워드를 포함하는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뉴스 이용 행태에 대한 한국언론진흥재단(2018)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뉴스 이용자들의 뉴스 접근 방법은 신문과 잡지 등 전통 인쇄 매체보다 포털·검색 서비스에서 뉴스를 찾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신문 이용률은 매년 급감하여 2017년 16.7%에 그친 반면, 인터넷신문 이용은 급격히 상승하여 모바일 뉴스 이용률 73.2%, PC 뉴스 이용률 32.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뉴스 이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이(85.6%) 포털사이트 메인페이지의 뉴스제목이나 사진을 보고 뉴스를 클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언론사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는 뉴스 이용자들은 5% 수준에 그치고 있다(디지털뉴스리포트, 2017).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하는 현대인들의 미디어 이용과 뉴스 소비 행태를 반영하고자 포털의 온라인 뉴스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때 한국의 디지털 뉴스 환경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업체는 네이버(한국언론진흥재단, 2017)로 나타났다는 점에 근거하여 국내 포털사이트 점유율 1위인 네이버의 뉴스 카테고리에 게재된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을 2010년부터 지정한 것은 당해부터 공황장애를 주제로 다루는 뉴스 기사 건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제목에 ‘공황장애’를 포함하는 기사 건수를 연도별로 검색한 결과, 2007년 11건, 2008년 21건, 2009년 17건으로 보도 건수가 적었으나, 2010년 63건, 2011년 285건, 2012년 679건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2) 자료수집 기준 및 절차

분석을 위한 표집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네이버 뉴스 고급검색 기능을 통해 검색 영역을 ‘기사 제목’으로 설정한 후 기사 제목에 ‘공황장애’와 일치하는 단어가 포함되며, ‘대공황’, ‘경제공

황' 등 공황장애와 관련 없는 키워드를 포함하지 않고, 2010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동안에 게재된 기사를 추출하였다. 상기의 기준을 바탕으로 기사를 수집한 결과 총 6,994건이 추출되었다. 이 중 체계적 무작위 표집 방법을 통해 전체의 약 10%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네 이버에서 뉴스 기사를 검색할 경우 한 페이지 당 10개의 기사 목록이 제시되는데, 전체 기사의 약 10%인 700개의 기사를 체계적 무작위로 표집하기 위해서는 표집 간격이 10이 된다. 따라서 각 페이지마다 첫 번째 게시 기사를 선택할 경우 1번, 11번, 21번째 기사가 표집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사 검색결과 페이지를 '오래된 순'으로 정렬한 후, 매 페이지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기사를 표집 하였으며, 700번째 기사가 수집되었을 때 표집을 종료하였다. 이상의 표집 절차는 백혜진 등(2017)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이 때 표집 과정에서 동일 유명인의 사건에 대해 유사한 내용과 구성으로 보도하는 기사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뉴스 이용자들이 포털을 중심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행태를 고려할 때, 이러한 유사·반복 뉴스가 제시되는 포털 환경이 곧 뉴스 이용자들이 현실세계에서 실제로 노출되어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디어 이용 환경을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유사 기사를 제거하지 않고 분석대상 기사에 포함하였다. 단, 표집 과정에서 공황장애가 기사의 메인 이슈가 아닌 단순히 언급만 된 기사 또는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활용된 기사(예, '배우 지성이 공황장애를 앓는 재벌3세 역할을 맡았다')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 수집된 기사는 536건이며,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기사이다.

3) 분석항목의 조작적 정의 및 코딩

(1) 정보원 유형

정보원은 기사 내에 언급되는 개인(노수진, 윤영민, 2013), 기자들이 사건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얻기 위해 인터뷰나 인용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단체(백혜진 등, 2017; 좌보경·백혜진·서필교, 2014), 또는 직업 타이틀과 함께 언급되며 기사에서 “”, [] 등에 직접 인터뷰된 사람(조수영·김정민, 2010)을 말한다. 그런데 공황장애의 경우 초기 대중들에게는 우울증과 같이 잘 알려진 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므로 특정 개인, 특히 유명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의 전달만으로 질병의 존재를 알리는 정보원으로서 역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사 내에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언급되는 개인 모두가 환자이면서 동시에 정보원이라 보고, 정보원을 '공황장애 뉴스기사 내에서 언급되는 개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였다. 정보원 유형으로는 일반인 환자(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묘사된 일반 회사원, 학생, 주부 등 개인), 유명인 환자(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묘사된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유명한 개인), 의료인(양방 및 한방 의사 개인 또는 의료단체), 전문가(의료인을 제외한 심리전문가, 연구원, 교수 등), 정부기관(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 시민 단체(노조 등 단체), 기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원 유형 각각을 변인으로 두고 하나의 기사 내에서 각 정보원 유형이 등장한 빈도를 코딩하였다. 이 때 같은 유형에 속하지만 독립적인 정보원이 복수로 등장하는 경우 등장 횟수 모두를 코딩하였다(예, 서로 다른 유명인 환자 3명이 등장하는 경우 유명인 환자 유형에 3명으로 코딩). 하지만 한 기사 내에서 동일한 이름의 정보원이 반복 등장할 경우는 한 번만 코딩하였다(예, 한 명의 전문가가 중복 언급될 경우 전문가 유형에 1명으로 코딩).

(2) 환자 정보원 성별

환자 정보원 성별은 남성, 여성, 성별정보 없음(예, 정보원의 직업, 나이 정보만 제시되거나, 익명으로 제시되는 경우)으로 구분하고 하나의 기사에 등장하는 모든 환자 정보원의 성별을 코딩하였다. 즉 본 연구의 분석단위가 기사이므로, 하나의 기사에서 나타나는 유명인 남성, 유명인 여성, 유명인 성별없음, 일반인 남성, 일반인 여성, 일반인 성별없음 유형에 따라 기사 내 등장 횟수만큼 기입하였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기사에서 서로 다른 유명인 환자 3명(남성 2명, 여성 1명)과 일반인 환자 1명(남성 1명)이 등장할 경우 유명인 남성 환자 유형에 2명, 유명인 여성 환자 유형에 1명, 유명인 성별없음 유형에 0명으로 코딩하고, 일반인 남성 환자 유형에 1명, 일반인 여성 환자 유형에 0명, 일반인 성별정보 없음 유형에 0명으로 기입하였다.

(3) 공황장애 정의 및 원인

공황장애 정의는 기사에서 공황장애 질병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 “공황장애란···을 말한다/뜻한다”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을 가리킨다. 기사 본문에서 이러한 형식을 가진 내용이 언급되는지 여부로 코딩하였다(언급하지 않음: 0, 언급: 1). 공황장애 발병 원인은 공황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것으로, 심리·사회적 요인(스트레스, 불우한 환경 등), 생물학적 요인(뇌기능 또는 뇌구조 이상 등), 행동적 요인(과로, 성 행위, 커피/술 섭취, 과도한 조명에 노출 등)으로 구분하였다. 발병 원인은 각 요인을 개별 변인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기사에서 각 원인의 언급 여부를 코딩하였다(언급하지 않음: 0, 언급: 1).

(4) 공황장애 증상 및 자기진단 정보

공황장애 증상은 공황장애를 겪을 시 나타나는 심리적, 신체적 변화에 대한 서술로, 심리, 정신

적 증상(극도의 공포, 죽을 같은 절박한 느낌, 예기 불안 등), 신체적 증상(빠른 맥박, 호흡곤란, 흉통, 발한 등), 시간적 증상(발작 지속시간 20~30분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증상유형 각 각을 변인으로 두고 각 변인의 언급 여부를 코딩하였다(언급하지 않음: 0, 언급: 1). 공황장애 자가진단은 본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공황장애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하도록 해 주는 내용을 뜻하며(예, 다음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면 공황장애를 의심해야 한다), 내용의 언급 여부를 코딩하였다(언급하지 않음: 0, 언급: 1).

(5) 공황장애 취약성, 심각성 및 회복사례

취약성은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이 나와 얼마나 관련이 높은지 느끼는 정도(안순태, 이하나, 2016)로, 사회 계층별 취약성(특정 사회 계층을 취약 대상으로 지정함. 예, 공황장애는 취업 준비생/직장인에게 많이 발병한다), 연령별 취약성(특정 연령층을 취약 대상으로 지정함. 예, 공황장애는 20대가 취약한 질병이다), 성별 취약성(특정 성별을 취약 대상으로 지정함. 예, 여성이 남성보다 공황장애에 더 취약하다) 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내용분석을 진행하면서 앞서 기술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취약성 외에 공황장애는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질병으로 묘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이를 일반적 취약성(예, 공황장애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다) 유형으로 정의하여 최종 총 4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코딩은 4가지 하위 유형을 개별 변인으로 처리하여 기사 내에서 각 취약성의 언급 여부를 코딩하였다(언급하지 않음: 0, 언급: 1). 심각성은 공황장애를 예방하거나 치료 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내적(신체적, 심리적) 및 외적(사회적) 영향으로 정의하고 내적 심각성(예, 공황장애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 우울증으로 발전될 수 있다)과 외적 심각성(예, 공황장애가 심화되면 취업이나 인간관계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으로 유형화 하였다. 심각성 역시 각 유형을 개별 변인으로 처리하여 기사 내에서 언급 여부를 코딩하였다(언급하지 않음: 0, 언급: 1). 회복 사례는 공황장애를 겪은 사람들의 회복 경험에 대한 사례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긍정적 사례, 부정적 사례, 사례제시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이 때 긍정적 사례는 과거 공황장애를 겪었으나 치료를 통해 회복하였거나 또는 과거에 비해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경험에 대한 사례를 의미한다. 반면 부정적 사례는 공황장애를 앓는 도중 상태가 악화되거나, 회복 후에 재발한 경우, 그리고 자살 등의 극단적인 상태에 이른 경우 등을 포함하였다. 마찬가지로 각 사례 유형을 개별 변인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기사에서 각 변인의 언급 여부를 코딩하였다(언급하지 않음: 0, 언급: 1).

(6) 공황장애 예방·치료법

예방 및 치료법은 공황장애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는 대책이나 방법으로 정의하고, 본 연구에서는 노수진·윤영민(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적극적 방법과 소극적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적극적 방법은 약물 치료(예, 항불안제 복용, 항의약 복용 등), 인지행동 치료(공황발작이 일어나도 발작이 사라지면 실제 생명에는 위협이 없음을 인지시키는 방법), 입원 및 상담 치료(예, 전문가와의 상담치료나 병원 입원 치료)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소극적 치료는 생활 속에서 개인이 실행 가능한 치료(예,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피하기, 음식 조절, 운동)와 주변인의 도움을 통한 치료방법(예, 친구와 배우자의 격려 등)으로 정의하였다. 코딩은 적극적 방법과 소극적 방법을 각 변인으로 처리하여 기사에서 언급 여부를 코딩하였다(언급하지 않음: 0, 언급: 1).

4) 코더 간 신뢰도

기사 표본의 약 10%($n=60$)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두 명의 코더가 해당 기사를 분석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코헨의 카파(Cohen's Kappa)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분석 전 코더에게 변인의 조작적 정의와 코딩 예시를 담은 코드북(code book)을 활용해 충분히 교육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별 신뢰도는 최소 .78(연령집단별 취약성)에서 최대 1(환자 정보원 성별, 자가진단정보 등)사이로 나타났다.

5.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 분석

<연구문제 1-1>은 공황장애에 대한 언론보도건수 및 공황장애 환자 수의 증감 추이와 두 변인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공황장애로 인한 외래 및 입원을 포함한 환자 수는 2010년 5만 3천여 명에서 2016년 12만 7천여 명으로 증가, 6년 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수 증감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언론보도량 증감 추이도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표본추출 전 최초로 수집한 6,994건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황장애 언론보도량은 2010년 63건에서 2016년 1,275건으로 6년 만에 약 2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매년 1천 건 이상의 공황장애 관련 기사가 보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표 2> 참고).

표 2. 2010~2016년 공황장애 환자 수 및 공황장애 언론보도 건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환자 수 (단위: 명)	53,345	66,092	83,480	93,098	98,070	111,109	127,053
언론보도 건수 (단위: 건)	63	285	679	389	2,666	1,637	1,275

공황장애 환자 수와 언론보도 건수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확인한 결과, 공황장애 언론보도 건수는 2014년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선형 추세선을 확인한 결과 <그림 1>에서와 같이 두 요인 모두 시간변화에 따라 나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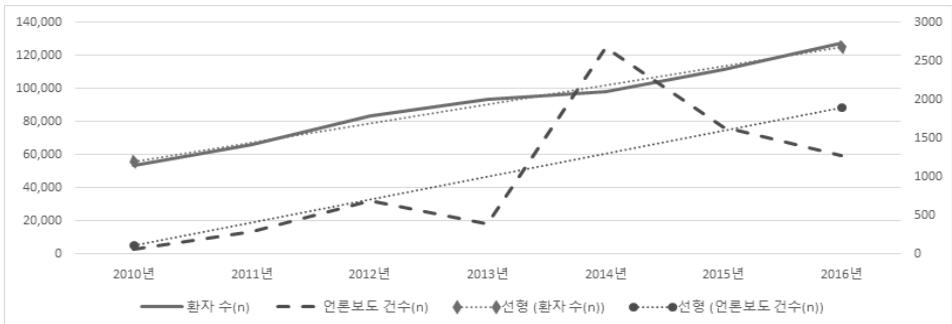


그림 1. 2010~2016년 공황장애 환자 및 언론보도량 증감 추세

<연구문제 1-2>는 공황장애 언론보도에 나타나는 정보원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빈도 분석 결과 전체 분석대상 기사 536건에서 총 717명의 정보원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유명인 환자 정보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84.5%), 일반인 환자(5.9%)의 10배 이상 수준이었다. 반면 공황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는 의료인(6.3%)이나 전문가(0.7%)의 등장은 미미했다(<표 3> 참고).

표 3. 정보원 유형에 대한 빈도분석 (N=717)

정보원 유형	비율(%)
유명인 환자	84.5
의료인	6.3
일반인 환자	5.9
장부부처	0.8
전문가	0.7
시민단체	0.3
기타	1.5
합계	100

〈연구문제 1-3〉은 언론보도에서 제시되는 공황장애 환자의 성별 비율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성비가 환자 정보원 유형(일반인 vs. 유명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사회적 현실이 언론보도에 얼마나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빈도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전체 정보원(717명) 중 환자 정보원은 총 64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 환자 정보원이 75.9%, 여성 환자 정보원이 22.4%로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의 3배 이상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성비 차이가 환자 정보원 유형(일반인 또는 유명인 환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일반인 환자 정보원(42명) 중에서 성별이 제시되지 않는 환자(26.2%)를 제외하면 남성 일반인 환자가 69.0%, 여성 일반인 환자가 4.8%로 남성 환자가 등장하는 비중이 여성 환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일반인 환자가 여성 일반인 환자의 10배 이상 수준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어 남성 중심적 성별 편향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유명인 환자(606명) 중에서는 남성 유명인 환자가 76.4%, 여성 유명인 환자가 23.6% 등장하였다. 즉 일반인 환자에서 나타나는 남성 중심의 성별 편향성이 유명인 환자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표 4〉 참고).

표 4. 환자 정보원 유형에 따른 환자 성별 빈도분석

환자 정보원 유형	환자 정보원 성별	비율(%)
일반인 환자	남성	69.0
	여성	4.8
	성별정보 없음	26.2
	합계 (n=42)	100
유명인 환자	남성	76.4
	여성	23.6
	성별정보 없음	0.0
	합계 (n=606)	100
환자 전체	남성	75.9
	여성	22.4
	성별정보 없음	1.7
	합계(n=648)	100

2) 〈연구문제 2〉 분석

〈연구문제 2-1〉은 공황장애의 정의와 발병 원인에 대한 언급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빈도분석 결과, 전체 분석대상 기사 536건 중 17.4%만이 공황장애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82.6%는 그러한 정보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다음으로 발병 원인에 대한 언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분석기사 중 63.4%가 심리·사회적 원인을 언급하고 있었으며, 생물학

적 원인(5.0%)과 행동적 원인(4.3%)에 대한 언급은 미미하였다. 즉 전체 기사의 절반 이상이 공황장애의 심리, 사회적 원인을 제시하는 반면, 생물학적, 행동적 원인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고).

표 5. 공황장애 정의와 원인 언급에 대한 빈도분석 (N=536)

		비율(%)
공황장애 정의	정의 제시	17.4
	정의 제시 없음	82.6
	합계	100
공황장애 원인	심리·사회적 원인 언급	63.4
	심리·사회적 원인 언급 없음	36.6
	합계	100
	생물학적 원인 언급	5.0
	생물학적 원인 언급 없음	95.0
	합계	100
	행동적 원인 언급	4.3
	행동적 원인 언급 없음	95.7
	합계	100

〈연구문제 2-2〉에서는 공황장애 증상 및 자가진단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는 정도를 탐색하였다. 증상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분석대상 기사 536건 중 심리·정신적 증상 정보를 제시하는 기사(70.9%)가 가장 많았고, 신체적 증상에 대한 언급(43.3%)이 그 뒤를 이었다. 증상의 지속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기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4.7%). 다음으로 자신의 상태가 공황장애에 해당하는지를 기능하게 해 주는 자가진단 정보는 전체 기사의 단 3.4%만 언급하는데 그쳐 분석대상 기사의 대부분(96.6%)이 자가진단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고).

표 6. 공황장애 증상과 자가진단 언급에 대한 빈도분석 (N=536)

		비율(%)
공황장애 증상	심리·정신적 증상 언급	70.9
	심리·정신적 증상 언급 없음	29.1
	합계	100
	신체적 증상 언급	43.3
	신체적 증상 언급 없음	56.7
	합계	100
	시간적 증상 언급	4.7
	시간적 증상 언급 없음	95.3
	합계	100

		비율(%)
공황장애 자기진단	자기진단정보 제시	3.4
	자기진단정보 제시 없음	96.6
	합계	100

〈연구문제 2-3〉은 공황장애 취약성, 심각성 및 회복사례의 언급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빈도분석 결과(〈표 7〉 참고) 전반적으로 취약성, 심각성, 회복사례에 대한 언급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취약성 유형별로 언급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직장인, 구직자, 연예인 등 사회 계층별 취약성을 언급한 기사가 6.5%, 특정 연령대의 취약성을 언급한 연령별 취약성을 언급한 기사가 4.1%, 남성 또는 여성에 따른 취약성을 언급한 성별 취약성을 언급하는 기사가 2.6% 수준에 머물렀고, 특정 계층이나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공황장애는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공황장애의 일반적 취약성을 언급하는 기사도 5.2% 수준에 머물러 취약성 전반에 대한 언급이 매우 부족하였다.

다음으로 공황장애 예방 또는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심각성 언급에 대해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기사의 17.9%만이 개인 내적 수준에서 겪을 수 있는 심각성을 다루고 있고, 개인 외적 영향에 대한 언급은 그보다 더 낮은 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약성과 마찬가지로 공황장애 질병을 예방, 치료하지 않을 경우 겪을 수 있는 심각성에 대한 언급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황장애 회복 사례에 대한 언급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사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인 48.5%가 회복 사례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사례를 제시하는 기사에서는 긍정적 사례에 대한 언급이 42.2%, 부정적 사례에 대한 언급이 9.3%로 나타나 긍정적 회복사례가 부정적 회복사례에 비해 약 5배 정도 더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공황장애 취약성, 심각성 및 회복 사례 언급에 대한 빈도분석 (N=536)

		비율(%)
공황장애 취약성	사회계층별 취약성 언급	6.5
	사회계층별 취약성 언급 없음	93.5
	합계	100
	일반적 취약성 언급	5.2
	일반적 취약성 언급 없음	94.8
	합계	100
	연령집단별 취약성 언급	4.1
	연령집단별 취약성 언급 없음	95.9
	합계	100

		비율(%)
	성별 취약성 언급	2.6
	성별 취약성 언급 없음	97.4
	합계	100
공황장애 심각성	내적 심각성 언급	17.9
	내적 심각성 언급 없음	92.1
	합계	100
	외적 심각성 언급	3.0
	외적 심각성 언급 없음	97.0
합계	100	
공황장애 회복사례	긍정적 회복사례 제시	42.2
	부정적 회복사례 제시	9.3
	회복사례 제시 없음	48.5
	합계	100

〈연구문제 2-4〉는 공황장애의 예방 및 치료방법에 대한 언급 정도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먼저 의사나 전문가와의 상담, 병원 입원, 약물치료,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해서는 전체 기사의 38.4%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지인과의 소통 또는 일상 속 운동이나 마음가짐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극적인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한 언급은 24.3%로 나타났다(〈표 8〉 참고).

표 8. 공황장애 예방·치료법 언급에 대한 빈도분석 (N=536)

		비율(%)
공황장애 예방·치료법	적극적 예방·치료법 언급	38.4
	적극적 예방·치료법 언급 없음	61.6
	합계	100
	소극적 예방·치료법 언급	24.3
	소극적 예방·치료법 언급 없음	75.7
	합계	100

3) 〈연구문제 3〉 분석

〈연구문제 3〉은 기사에서 중심이 되는 환자 정보원이 일반인 환자 또는 유명인 환자인가에 따라 앞서 살펴본 보도양상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환자 정보원 유형(일반인 vs. 유명인) 각각을 변인으로 처리하여 기사 내에서 등장하는 빈도에 따라 코딩하였기 때문에 한 기사에서 일반인 환자와 유명인 환자가 모두 기록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기사의 중심이 되는 환자 유형에 따른 보도양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코딩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기사 재독해를 통해 하나의 기사에서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대표 환자 1명을 선정하였

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기사 내에서 유명인 환자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등장할 경우 유명인 환자 중심의 기사로($n=468$), 일반인 환자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등장할 경우 일반인 환자 중심의 기사로($n=38$) 재코딩하였다²⁾. 이로써 총 506개의 기사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재코딩 후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때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각 변인에 대해 Levene's test(유의수준 5%)를 실시하여 검정 통계량(F 값)과 유의확률(p 값)을 바탕으로 등분산 가정 성립 여부에 따라 결과를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명인 환자 중심의 보도보다 일반인 환자 중심의 보도가 다수의 항목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표 9〉참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을 중심으로 보면 먼저 공황장애의 행동적 원인에 대해 일반인 환자 중심의 보도가 유명인 환자 중심의 보도보다 더 많이 언급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t = 2.08, p = .044$). 공황장애로 인한 신체적 증상에 대해서도 유명인 환자 중심 보도보다 일반인 환자 중심의 보도가 더 많이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4.21, p < .001$). 공황장애 취약성도 사회계층별 취약성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 모두에 대해 유명인 환자보다 일반인 환자 중심의 기사에서 더 많이 언급되었다(연령집단별 취약성: $t = 2.94, p = .006$, 성별 취약성: $t = 2.91, p = .033$, 일반적 취약성: $t = 2.54, p = .015$). 공황장애 회복 사례는 긍정적 사례 또는 부정적 사례인가에 따라 일반인 환자 중심의 기사와 유명인 환자 중심의 기사가 언급하는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황장애를 겪었지만 현재 극복했거나 또는 과거에 비해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긍정적 사례는 일반인 환자 중심 기사에서보다 유명인 환자 중심 기사에서 더 많이 언급된 반면($t = -6.58, p < .001$), 공황장애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또는 자살과 같은 결과가 야기되었음을 보고하는 부정적 사례는 유명인 환자의 경우보다 일반인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보도에서 더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t = 5.31, p < .001$). 마지막으로 공황장애의 예방 및 치료방법 중 적극적 방법에 대해 유명인 환자 중심 보도보다 일반인 환자 중심의 보도가 더 많이 언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 = 3.95, p < .001$).

2) 예를 들어 “방송인 김구라가 공황장애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분석할 때, 기사 전반에서 방송인 김구라의 증상과 치료방법에 관련한 정보를 중심으로 다루고 그 외 공황장애를 겪는 유명인 환자들의 이름만 열거하는 경우 해당 기사는 ‘유명인 환자 중심 기사’로 코딩하였다.

표 9. 환자 정보원 유형에 따른 공황장애 보도양상의 차이 t-검증

		환자 유형		t
		일반인 (n=38)	유명인 (n=468)	
		M(SD)	M(SD)	
정의	정의 제시	.24(.43)	.13(.33)	1.55
	심리·사회적	.66(.48)	.63(.48)	.36
발병 원인	행동적	.16(.37)	.03(.18)	2.08*
	생물학적	.08(.27)	.02(.15)	1.24
증상	심리·정신적	.82(.39)	.69(.46)	1.84
	신체적	.71(.46)	.38(.49)	4.21***
자기진단	시간적	.13(.34)	.03(.17)	1.85
	자기진단정보 제시	.11(.31)	.01(.09)	1.91
취약성	사회계층별	.05(.23)	.07(.25)	-.33
	연령별	.21(.41)	.01(.11)	2.94**
	성별	.13(.34)	.01(.09)	2.21*
심각성	일반적	.18(.39)	.02(.15)	2.54*
	내적	.21(.41)	.16(.37)	.80
회복 사례	외적	.03(.16)	.02(.15)	.11
	긍정적	.11(.31)	.47(.50)	-6.58***
예방·치료방법	부정적	.50(.51)	.06(.24)	5.31***
	적극적	.63(.49)	.34(.48)	3.58***
	소극적	.16(.37)	.24(.43)	-1.22

* $p < .05$. ** $p < .01$ *** $p < .001$

추가로, 이상의 결과에서 나타난 공황장애 언론보도 경향이 전통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기사와 기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 분석대상 기사를 '주요 일간지(n=104)'와 '인터넷 신문(n=432)'으로 재분류하였다. 이 때 주요 일간지는 주요 10대 일간지(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세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를 포함하고, 인터넷 신문은 이 외 모두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 있는 모든 변인에 대해 유의수준 5% 에서 두 언론사 유형 간에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언론보도 경향이 2010년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가를 확인한 결과, 정보원 유형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연도와 정보원 유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공황장애 언론보도의 정보원 유형 중 유명인 환자 정보원은 2014년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여 2014년에는 96.7%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5년 88.5%, 2016년 77.9%로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일반인 환자 정보원과 환자 외 정보원(의료인, 전문가, 정부기관, 시민단체, 기타)의 비중이 2015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63.82$, $df = 12$, $p < .001$).

6.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최근 빠른 속도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공황장애에 초점을 두고 공황장애에 대한 언론 보도 양상을 양적 내용분석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의 틀로 예방책 채택 과정 모형(PAPM)에 근거, 언론이 공황장애에 대한 인지에서부터 치료 이행에 이르기까지 건강행위 증진에 필요한 정보를 균형 있게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언론이 보도를 접하는 수용자로 하여금 공황장애 건강행위를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진단해봄으로써 향후 공황장애를 다루는 언론보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하였다.

분석 결과 온라인 뉴스를 통해 보도된 공황장애 기사는 2010년 63건에서 2016년 1,275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세는 공황장애 환자 수에서도 나타나는데 공황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10년 53,345명에서 2016년 127,05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래프를 통해 확인한 결과 두 요인 모두 시간변화에 따라 나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두 요인의 관계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예측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공황장애 언론보도가 증가하면서 보도에 노출되는 공중의 건강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병원을 찾도록 이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한 백혜진 등(2017) 연구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언론의 의제설정 역할을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제설정 이론(McCombs & Shaw, 1972)에 따르면 매스 미디어는 반복된 뉴스 보도를 통해 공중에게 이슈의 중요성을 심어줄 수 있다. 즉 미디어가 특정 이슈를 강조하고 중요하게 다루면 해당 이슈에 대한 공중의 중요도 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공황장애 언론보도의 정보원 대부분이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공황장애에 대한 공중의 주목과 관심 환기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고, 이러한 영향 아래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공황장애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이 언론보도량의 증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양측 방향의 추론이 가능한 바, 향후 연구에서는 시차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양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연구의 한계 부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공황장애 언론보도의 정보원은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황장애가 ‘연예인 병’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많은 유명인들이 언론을 통해 유명 경험을 증언하고 이러한 발언들이 기사를 통해 전파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공황장애가 유명인을 주축으로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는 분석(연합뉴스, 2017.3.19)을 일부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의료인 정보원과 교수,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 정보원이 등장하는 비중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유명한 환자 정보원의 비중이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일반인 환자 정보원과 의료인, 전문가 등의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 정보원에 의한 깊이 있는 건강정보 전달이 부족하다는 점은 공황장애 보도의 질적 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므로 향후 언론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황장애 언론보도에서 등장하는 환자의 성별 비율은 실제 국내 공황장애 환자의 성비와 차이를 보임으로써 사회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등장하는 남성 환자는 여성 환자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2011년 이래로 매년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이처럼 실제 현실과는 다른 남성 환자 중심의 보도는 여성 환자들로 하여금 공황장애가 남성에게만 취약한 질병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병을 더욱 숨기고 병원 방문을 꺼려 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이 향후 공황장애를 다룰 시에는 남성 환자 중심의 보도에서 벗어나 여성 환자의 사례를 더욱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성별 편향 없이 균형 있는 보도를 지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황장애 언론보도가 공황장애 건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언급하는 정도를 PAPM 단계에 근거하여 확인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 미 인지〉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황장애 정의와 발병 원인에 대한 언급 정도를 확인한 결과, 공황장애의 정의를 제시하는 보도는 전체 분석기사의 17.4%에 지나지 않았다. 공황장애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보편적으로 알려진 질병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정의가 제시되지 않으면 오해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낙인이나 편견을 만들 수 있다. 향후 보도에서는 공황장애가 어떤 병인지 정확히 정의하는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그릇된 인식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기사의 절반 이상이 세 가지 발병 원인 유형 중 하나 이상의 원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심리·사회적 원인에 대한 언급이 생물학적, 행동적 원인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의학적으로 공황장애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복수의 원인이 상호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다양한 유형의 원인 정보를 전달하는 균형 있는 보도가 필요해 보인다.

〈문제 미 개입〉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공황장애 자가진단 정보를 제시하는 기사는 전체의 3.4%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의 74.6%의 기사가 한 가지 이상의 증상 정보를 언급함으로써 자가진단 정보의 부재를 보완하고 있었다. 특히 심리·정신적 증상 정보를 전체 기사의 70.9%가 언급하고 신체적 증상에 대해서도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기사가 언급하고 있

었는데, 이는 비록 공황장애를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정보의 언급은 미약하지만 공황장애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증상이 공황장애 증상과 유사한지 여부를 판별하도록 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황장애에 대한 관여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행동 고려 및 결정>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성, 심각성, 그리고 회복 사례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체 기사의 86.6%가 취약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계층별 취약성, 연령별 취약성, 성별 취약성, 그리고 일반적 취약성에 대한 각 언급 비중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즉 공황장애 보도를 접하는 수용자로 하여금 본인도 공황장애에 걸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각성하게 하는 정보 전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각성 정보를 제시하는 기사도 전체의 약 20% 수준으로 예방과 치료를 하지 않을 시에 겪을 수 있는 심각성을 환기시켜 줄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 사례 역시 전체 분석기사의 절반 정도가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향후 공황장애를 다루는 언론보도가 긍정적 회복과 성취 사례에 대한 언급 비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공황장애가 회복 가능한 질병이라는 신념을 가지도록 돕고 대중의 부정적인 편견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회복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 기사 중에서는 공황장애를 겪었으나 호전된 사례 또는 완치하여 극복한 긍정적인 사례를 언급하는 기사가 부정적 사례를 제시하는 기사보다 약 6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종합하면, <행동 고려 및 결정> 단계에서 질병의 취약성, 심각성 및 타인의 회복 사례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획득하느냐에 따라 건강행동을 수행 혹은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숙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세 정보의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은 향후 보도 담당자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 <실행 및 유지>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황장애의 예방 및 치료법 역시 전체 기사의 절반에 달하는 기사가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병원 입원, 약물 치료 등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방법에 대한 언급이 소극적 방법에 대한 언급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질환 치료 거부율이 높고(보건복지부, 2017),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양옥경, 1998; 한덕웅·이민규, 2003)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과 치료법에 대한 정보 전달이 부족하다는 것은 건강행동 실행을 결심한 개인이 실제로 건강행위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결과이므로 향후 공황장애 보도에서 예방과 치료법에 대한 논의를 간과하지 않도록 언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공황장애에 대한 언론보도는 <문제 미 인지>와 <문제 비 개입> 단

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정보에 대해서는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행동 고려 및 결정〉과 〈실행 및 유지〉 단계와 관련한 정보 전달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특정 정보에 편중된 보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보를 균형 있게 전달함으로써 보도의 질적 수준을 향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기사에서 중심이 되는 환자 정보원 유형에 따른 보도양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명한 환자 중심의 보도보다 일반인 환자 중심의 보도가 공황장애 건강행위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언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저널리즘 가치 측면에서는 일반인 환자 중심 기사의 질적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분석 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유명한 환자 중심의 공황장애 보도는 해당 유명인이 공황장애를 고백한 TV프로그램이 언제 방영되는지 알려주는 식의 홍보용 기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특정 유명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단순 사건전달과 유명인의 사적 이야기를 위주로 하는 일화 중심적인 기사가 많은 반면, 공황장애에 대한 취약성이나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는 구체적인 치료방법과 같은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 전달이 함께 이루어지는 주제 중심적인 보도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언론보도 행태의 원인이자, 추가 분석을 통해 전통 언론사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에서 보도 양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본 연구는 뉴스의 연성화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언론보도의 연성화 경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조선닷컴 기사의 54%가 연성기사이며(최영·박창신, 2009), 국내 방송 3사의 메인뉴스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연성뉴스가 56%로 높게 나타났다(정수영·남상현, 2012). 이러한 연성뉴스의 비중은 전통적 뉴스 미디어보다 포털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종이신문에 비해 포털뉴스가 대중의 흥미를 끄는 기사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희, 2008). 이러한 가운데 국내 온라인미디어 이용자의 인터넷뉴스 이용방법 1위가 포털사이트 메인의 뉴스 제목이나 사진, 실시간 검색어를 보고 뉴스를 클릭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뉴스 콘텐츠의 연성화가 수용자의 뉴스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높은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를 반영하듯,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 이용자의 44.6%가 어느 언론사의 뉴스를 읽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며(한국언론재단, 2010), 포털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방송/연예, 핫 이슈 등인 반면, 가장 적게 접하는 분야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임중수·유승현, 2007). 즉 선정적 이슈와 화제 거리 양산에 집중한 포털의 뉴스 연성화가 확대되고, 이러한 연성화가 다시 이용자의 뉴스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수레바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범람하는 뉴스 어뷰징(news abusing) 또한 이로부터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뉴스 어뷰징은 포털에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가 기사의 클릭 수를 높임으로써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처음

보도한 내용과 유사한 기사를 의도적으로 반복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김병희, 2015). 이 때 언론사들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기사를 바탕으로 기자의 이름만 자사의 기자로 변경하여 전송하거나 또는 같은 내용의 기사를 제목만 바꾸어 보내는 방법 등을 활용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공황장애 언론보도에서 건강행동 상위단계(〈행동 고려 및 결정〉 및 〈실행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깊이 있는 정보의 제공이 부족하고, 정보원 측면에서도 유명인 정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의료인이나 전문가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할 정보원이 부족한 현상 역시 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 획득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뉴스의 연성화는 더욱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대상이다. 유명인을 중심으로 한 흥미위주의 정신건강 관련 보도가 홍보 소재로 활용되고 나아가 정신건강 이슈를 상품화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지적(노수진·윤영민, 2013)이 본 연구에서도 이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뉴스 연성화와 유명인 정보원이 가지는 고질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도에서 유명인 정보원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 새롭게 주목할 만한 두 가지 결과를 발견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결과 남성 환자 정보원이 여성 환자 정보원보다 높게 나타나는 성별 편향성이 일반인 환자 정보원을 중심으로 하는 기사에서보다 유명인 환자 정보원 중심의 기사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황장애 언론보도에는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의 3배 이상 높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비의 차이는 일반인 환자 정보원 중심의 기사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의 10배 이상 수준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인 환자 정보원은 성별이 제시되지 않거나, 제시되더라도 남성 중심의 편향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유명인 환자 중심의 기사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3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남성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경향은 일반인 환자 중심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여성 환자가 등장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즉 실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국내 환자 중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사회적 현실이 유명인 환자 정보원을 통해 더욱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유명인 정보원의 경우 공황장애를 앓는 당사자 본인에 의한 유병사실 고백이 전제되어야 환자 정보원으로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성 유명인들의 공개 증언은 여성 일반인 환자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병을 알리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건강행동을 촉진하도록 이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명인 환자 중심 기사에서 남성 환자 중심적 편향성이 더 약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건강, 특히 정신질환 보도에서 유명인 환자 정보원이 긍정적으로 역할 할 수 있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 환자 정보원을 활용하는 보도의 향후 방향성 제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유명인 정보원은 유병사실을 고백한 유명인만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유명인의 증언이 선제되지 않으면 기사 작성자가 성별을 선택하여 기사를 구성할 권한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하지만 일반인 환자 정보원의 경우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건을 보도하는 경우(예, 공황장애를 앓다 자살한 서울시 지하철도 기관사에 대한 보도)를 제외하면 기사 작성자가 불특정 일반인 환자의 사례를 발굴하여 보도한다는 점에서(예, 공황장애로 인해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31세 직장인 김00씨에 대한 보도) 남성 혹은 여성 중심의 기사 구성에 대한 선택권이 보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일반인 환자를 정보원으로 기사를 구성할 경우 여성 환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도함으로써 보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유명인 정보원의 경우에도 여전히 남성 환자의 등장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여성이 공황장애로 더 고통 받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유명인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보도에서 공황장애의 긍정적인 회복 사례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이 나타났다는 점에서도 건강보도에서 유명인 정보원의 긍정적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인 환자 중심의 보도에서는 부정적인 사례 언급(50.0%)이 긍정적 사례(10.5%)보다 더 많은 반면, 유명인 환자 중심의 보도에서는 긍정적인 회복 사례에 대한 언급(47.0%)이 부정적 사례 언급(6.0%)보다 월등히 더 많았다. 특히 유명인 정보원의 경우 회복 경험을 얘기하면서 본인의 치료 방법을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순한 치료정보 제시보다 그를 통한 회복 사례를 동시에 제시할 경우 치료가능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전망을 하도록 이끌 수 있다. 치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 환자가 치료가능성을 낮게 인식할 경우 치료를 받지 않거나 소극적 치료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 행동 또한 감소하기 때문이다(Corrigan, 2000). 따라서 유명인이지만 동시에 공황장애를 겪은 환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회복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해당 내용을 접하는 환자 뿐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공황장애가 회복 가능한 질병이라는 신념과 인식을 가지게 해 줌으로써 공황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편견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즉 유명인 정보원은 긍정적인 회복 경험담 공유를 통해 환자로 하여금 건강행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황장애를 포함한 정신질환 치료의 문턱을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공황장애 언론보도에서 유명인 정보원의 긍정적 역할을 밝힘으로써 향후 정신건강 이슈를 다루는 언론을 대상으로 유명인 정보원 활용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유명인을 정보원으로 한 건강보도는 흥미 위주의 홍보성 기사가 대부분으로 뉴스를 상품화하거나 환자의 건강행동을 이끄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선행 연구들의 주요 논점이었다. 실제로 일부 유명인들이 TV 방송을 통해 “너도 공황이야?”, “내가 공황 전문가야” 등 공황장애와 환자를 희화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공황장애를 직접 겪은 유명인 환자가 그러한 회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될 경우에는 자칫 병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명인 정보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끊임없이 견지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유명인이 회복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여성의 사례를 증언하는데 효과적인 정보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유명인 정보원의 역할을 새로운 각도에서 평가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건강보도를 기획하는 실무자들이 유명인 정보원의 활용 방향을 설정하는데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내용분석의 틀을 설정하는데 있어 예방책 채택 과정 모형 이론을 적용하여 공황장애 건강행위 단계별로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들에 대한 언급 정도를 면밀히 살펴보았다는데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공황장애 언론보도를 접하는 수용자들이 공황장애에 대한 인지에서부터 예방과 치료에 이르기까지 공황장애에 대한 지식수준이 상이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언론보도가 각기 다른 수준의 건강정보를 얼마나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언론의 조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언론의 보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건강관련 언론보도 내용분석에서도 예방책 채택 과정 모형을 적용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도경향을 탐색한다면 보다 풍부한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기사를 통해 보도되는 공황장애 뉴스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유명인들의 질병에 대한 증언이나 회화회는 인쇄 매체보다는 예능 요소를 가진 토크쇼 등의 TV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위주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도 TV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인이 증언한 내용 일부를 전달하는 기사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기사내용 만으로는 건강 정보원으로서 유명인의 역할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위주로 한 TV 방송에서 언급되는 공황장애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언론보도와 환자 수 증감 간의 인과성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하였다. 공황장애는 언론을 통한 유명인의 증언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따라서 병원을 찾도록 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공황장애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언급 여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고, 또한 내용분석의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이러한 예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시차 상관관계 분석이나 실험방법을 통해 인과성을 검증해봄으로써 공황장애의 보도 효과를 측정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연구문제 1-1〉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공황장애 환자 수와 언론보도량 증감 간의 관계를 자세히 확인

하기 위해 상관분석이 필요하였으나 환자 수 정보가 연간 단위로만 공개되는 관계로 샘플 사이즈가 부족하여 진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분기별 또는 월별 공황장애 환자 인원 정보를 확보한 후 재검증을 시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질병 인식에 미치는 언론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건강증진 측면에서 건강보도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은 언론학계에서 꾸준히 관심 가져야 할 연구대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단기간 내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공황장애에 초점을 두고 내용분석을 시도한 국내 첫 연구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언론의 올바른 역할을 고민하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의료통계정보. URL: <http://opendata.hira.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보도자료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겪는 노인 70대 이상 3.4배 증가”. URL: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8828&page=1
- 김경희 (2008). 포털 뉴스의 의제설정과 뉴스가치. <한국언론학보>, 52권 3호, 28-52.
- 김병희 (2015). 포털의 검색 알고리즘 개발에서 기사 어뷰징 방지를 위한 영향요인 탐색. <커뮤니케이션 이론>, 11권 3호, 47-89.
- 김대욱·최명일 (2016). 의미연결망분석을 이용한 2005~2014년 자살보도 분석. <한국언론학보> 60권 2호, 178-208.
- 김세주·김영신·유상우 (2001). 공황장애 환자의 삶의 질. <신경정신의학>, 40권 3호, 407-415.
- 김인숙 (2009). 연예인 자살보도와 제 3 자 효과. <언론과학연구>, 9권 3호, 5-36.
- 김지환 (2016, 4, 10). 공황장애 앓던 서울도시철도 기관사 또 자살. <경향신문>.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091037001&code=940702
- 노수진·윤영민 (2013). 우울증에 관한 언론 보도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1호, 5-27.
- 백혜진·조혜진·김정현 (2017). 정신질환의 낙인과 귀인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한국언론학보>, 61권 4호, 7-43.
- 보건복지부 (2017). <2016 정신질환실태 조사>.
URL: http://download.mohw.go.kr/front_new/modules/download.jsp?BOARD_ID=320&CONT_SEQ=339138&FILE_SEQ=205844
- 서미경·김정남·이민규 (2008).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서윤경 (2014, 10, 1). 가수 겸 배우 한나, 지난 1월 자택서 자살... 공황장애 앓았다. <국민일보>. UR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726330&code=61181111&cp=nv>
- 신재우 (2017, 3, 19).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환자 한해 10만명 넘어섰다. <연합뉴스>. UR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7/0200000000AKR20170317165600017.HTML?input=1195m>
- 안동근 (2012). 유명연예인에 의한 위협소구 금연캠페인의 인지·행동효과. <사회과학연구>, 19권 1호, 93-119.

- 안순태·이하나 (2016).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 보도 방향. <보건사회연구> 36권 1호, 529-564.
- 양옥경 (1998).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편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권, 231-261.
- 임종수·유승현 (2007, 10월). <포털사이트뉴스 이용행태 연구>.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서울.
- 이하나·안순태 (2013). 자살예방뉴스의 낙인(stigma) 요소에 대한 분석. <한국언론학보>, 57권 4호, 27-47.
- 정수영·남상현 (2012). 지상파 TV 3 사 종합뉴스프로그램의 무보도와 단독보도 뉴스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6권 4호, 265-309.
- 제영모 (2004). 자살과 정신 장애. <생물치료정신의학>, 10권 1호, 3-10.
- 조수영·김정민 (2010).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지상파 TV 뉴스 분석. <한국언론학보>, 54권 5호, 181-204.
- 좌보경·백혜진·서필교 (2014). 금연정책관련 온라인 뉴스와 댓글 유형의 내용 분석. <홍보학 연구>, 18권 3호, 13-43.
- 최 영·박창신 (2009). 온라인 뉴스이용에 관한 연구: 조선닷컴 뉴스의 연성화 및 제목 선정성과 조회수 간의 상관관계.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7권 1호, 31-53.
- 최영희 (2006). 공황장애 인지행동치료의 최근 동향. <인지행동치료>, 6권 2호, 101-115.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2010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2017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 한국.
- URL: http://www.kpf.or.kr/site/kpf/research/select_MediaPdsView.do?seq=574323
- 한덕웅·이민규 (2003). 정신질환에 관한 사회적 표상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권 1호, 191-206.
- 히유정·최영희·박기환 (2003). 공황장애 집단 인지행동치료의 치료적 요인. <인지행동치료>, 3권 1호, 57-67.
- Adelman, R. C., & Verbrugge, L. M.(2000). Death makes news: The social impact of disease on newspaper coverag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ur*, 41(3), 347.
- Barlow, D. H. (1988). *Anxiety and its disorder: The nature and treatment of anxiety and panic*. New York: Guilford Press.
- Borinstein, A. B. (1992). Public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mental illness. *Health Affairs*, 11(3), 186-196.

- Brodie, M., Hamel, E. C., Altman, D. E., Blendon, R. J., & Benson, J. M. (2003). Health news and the american public, 1996~2002. *Journal of Politics, Policy and Law*, 28(5), 927-950.
- Braun, S. (2003). The history of breast cancer advocacy. *The Breast Journal*, 9(s2), S101-S103.
- Brown, W. J., & Basil, M. D. (1995). Media celebrities and public health: Responses to Magic Johnson's HIV disclosure and its impact on AIDS risk and high-risk behaviors. *Health Communication*, 7, 345-371.
- Coleman, R. & Thorson, E. (2002). The effects of news stories that put crime and violence into context: Testing the public health model of reporting.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7(5), 401~425.
- Coleman, R., Thorson, E., & Wilkins, L. (2011). Testing the effect of framing and sourcing in health news storie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6(9), 941-954.
- Corrigan, P. W. (2007). How clinical diagnosis might exacerbate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Social Work*, 52(1), 31-39.
- Entwistle, V. (1995). Reporting research in medical journals and newspapers. *British Medical Journal*, 310, 920-923.
- Fishman, J. M. (2006). Mass media and medicine: When the most trusted media mislead. *Mayo Clinic Proceedings*, 81, 291-293.
- Kennedy, G. E., & Bero, L. A. (1999). Print media coverage of research on passive smoking. *Tobacco Control*, 8(3), 254-260.
- Kincaid, D. L. (2002). Drama, Emotion, and cultural convergence. *Communication Theory*, 12, 136-152.
- McCombs, M. E., & Shaw, D. L.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176-187.
- Mills, M. E., & Davidson, R. (2002). Cancer patients' sources of information: use and quality issues. *Psycho Oncology*, 11(5), 371-378.
- Pechmann, C., & Ratneshwar, S. (1994). The effects of antismoking and cigarette advertising on young adolescents' perceptions of peers who smok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1(2), 236-251.

- Sadock, H. I., Kaplan, B. J., & Grebb, J. A. (1994). *Kaplan and Sadock's Synopsis of Psychiatry: Behavioral Sciences-Clinical Psychiatry*. Philadelphia: Williams & Wilkins.
- Sandman, P. M., Weinstein, N. D., & Klotz, M. L. (1987). Public response to the risk from geological radon. *Journal of Communication*, 37(3), 93-108.
- Sharma, P. S. (2008). Media's influence extends to cancer care. *JNCI*, 100(20), 1424-1426.
- Sieff, E. M. (2003). Media frames of mental illnesses: The potential impact of negative frames. *Journal of Mental Health*, 12(3), 259-269.
- Thornton, J. A., & Wahl, O. F. (1996). Impact of a newspaper article on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1), 17-25.
- Wahl, O. F., & Lefkowitz, J. Y. (1989). Impact of a television film on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7, 521-528.
- Weinstein, N. D. (1988). The precaution adoption process. *Health psychology*, 7(4), 355.
- Weinstein, N. D., & Sandman, P. M. (1992). A model of the precaution adoption process: evidence from home radon testing. *Health psychology*, 11(3), 170.
- Weinstein, N. D., Sandman, P. M., & Blalock, S. J. (2002). The precaution adoption process model. In Glanz, K., Rimer, B. K., & Lewis, F. M. (Eds.),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3rd ed., pp.121-143).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Yanovitzky, I. & Blitz, C. L. (2000). Effect of media coverage and physician advice on utilization of breast cancer screening by women 40 years and older.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17-134.
- Yanovitzky, I., & Stryker, J. (2001). Mass media, social norms, and health promotion efforts a longitudinal study of media effects on youth binge drinking. *Communication Research*, 28(2), 208-239.

최초 투고일 2018년 6월 11일
 게재 확정일 2018년 9월 14일
 논문 수정일 2018년 9월 28일

Abstract

A Content Analysis of Panic Disorder News Coverage

Ryuwon Kim

Ph.D. student, Korea University

Youngmin Yoon

Professor, Korea University

The number of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is steadily increasing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online news articles covering panic disorder through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source was celebrity patient, mentioned 10 times more than other sources such as non-celebrity patients, doctors, and experts. Based on the Precaution Adoption Process Model, which explains the individual's health behavior process, we have examined whether the news article was delivering balanced health information about panic disorder from basic information to specific treatment metho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found the information was imbalanced- mentioning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panic disorder was insufficient but the cause and symptom reference was enough. Also, we analyzed whether the news coverage was different by the type of patient source (celebrity vs. non-celebrity). It was found that the non-celebrity related articles covered more diverse information on panic disorder and the quality of the report was higher than celebrity oriented article. However, in terms of the gender bias of the patients presented in the article, male patients appeared 10 times more than female patients in non-celebrity patient related articles. However, in celebrity patient oriented articles, this gender bias narrowed considerably- female patients appeared to be 1/3 of male patients. Also, in terms of recovery cases from the disease, positive case such as symptom relief and cure were reported more frequently than negative cases in celebrity patient oriented article. On the other hand, non-celebrity oriented article showed more cases of negative than positive cases. 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in that it presents the guidelines of the media dealing with panic disorder and shows the

possibility of the positive role of celebrity as information sources in health journalism.

Keywords: panic disorder, news coverage, content analysis, celebrity, Precaution Adoption Process Model